

캐나다 목재펠릿: 캐나다의 원주민 커뮤니티 국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세계에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캐나다에서 6월 21일, 하지는 캐나다 원주민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명시한대로, 이 날은 “원주민, 이뉴잇족 그리고 메티스부족의 독특한 유산, 다양한 문화 및 탁월한 기여를 인정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고대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원주민과의 경제적 관계 증대는 캐나다 목재펠릿 업계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정치적 그리고 법적 변화의 결과로 더 많은 원주민 커뮤니티가 산림자원의 경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제재소 소유주, 도급업자 및 자문위원

으로서, 산림업계에서는 원주민 커뮤니티와 사업체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경제에서 원주민들과의 조화와 참여를 위한 기회가 됩니다.

캐나다는 중앙 정책과 운용 목표를 통해 원주민들과 관계를 개선시켜 왔습니다. 그 목표를 향한 중요한 걸음은 유엔의 원주민 권리선언의 인정과 채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권리선언은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정하고 경제, 사회 및 문화 개발을 자유롭게 추구할”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상태 개선”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원주민 소유의 그레놀즈 LG 펠릿 공장의 밝은 미래

땅에 대한 관리자 및 결정권자로서의 역할 증대로 원주민은 장래 캐나다 산림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에 의존하는 캐나다 목재펠릿업계는 원주민과 그들 사업체와의 경제적 관계를 성장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업자, 공급자, 고용인, 운영자 그리고 소유주와 같은 다양한 역할로, 캐나다 목재펠릿업계에 참여할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는 원주민이 녹색 경제에 동참하고, 관리와 지속가능성과 같은 가치를 지지하는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회는 펠릿업계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2009년 ADL 그룹 매쉬트아치 원주민 회사는 퀘벡 펠릿 제조사 그레놀즈 LG의 주식 50%를 소유하며 주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2012년 ADL 그룹은 퀘벡에서 가장 큰 펠릿 제조공장의 단독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펠릿제조사가 원주민 산림회사 및 벌목권 소유자와의 사이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거나, 생산 시설을 위한 공동 소유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펠릿업계의 미래 성공은, 특히 캐나다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주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일부는 이미 다져져 있고, 더 많은 관계가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관계가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목재펠릿 제조사는 국내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세계에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언제든지 원주민과 협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레놀즈 LG 펠릿 공장에서의 협업